

#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보는 영성이해

문 석 호\*

## 목 차

- |                                                                                                        |                                                                                                                          |
|--------------------------------------------------------------------------------------------------------|--------------------------------------------------------------------------------------------------------------------------|
| <p>I. 들어가는 말: “영성 혼돈의 시대”<br/>(다원주의 시대상황) 속의 기독교:<br/>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p>                                 | <p>3. 민중신학의 영성이해에 대한 오류 및 범신론적인 사고의 오류</p>                                                                               |
| <p>II. 기독교 “영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p> <p>1. 인본주의적 영성 이해와 종교 다원주의적 접근의 오류</p> <p>2. 영성과 성화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오류</p> | <p>4.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의 구체성</p> <p>IV. 맺는 말: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p> <p>결어1:참된 영성:양자로서의 영을 회복함</p> <p>결어2:참된 영성: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p> |

## I. 들어가는 말: “영적 혼돈의 시대”(다원주의 시대상황) 속의 기독교: ‘성경적 영성’이 요구된다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이미 스토티(John Stott) 박사가 말한 대로, 교회의 임무는 계속하여 새로운 복음, 새로운 신학, 그리고 새로운 도덕과 새로운 기독교를 창안해 내는데 있지 않고, 단 하나의 영원한 복음을 충실히 수호하는데 있다는 말은 현대에 이르러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하나님

\* 신학과 부교수

의 자기계시는.... 첨가나 수정 등 여하한 방식으로 변경될 수 없다. 그것은 진리나 권위 면에서 불변적이다”는 말 역시 의미를 갖는다.<sup>1)</sup>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다만 인식론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칼빈(Calvin)이 말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경건(敬虔)과 성화(聖化)에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어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먼저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 그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로운 삶을 지향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신자의 영적인 삶을 추구해나가는 ‘영성’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날의 기독교 신학과 그 사상이 당면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최근에 일고있는 ‘영성’에 대한 이해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매우 신중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있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인간의 죄성을 무시한 채 다만 수덕적(修德的) 차원으로서 인간의 가능성을 부르짖는 인간중심적 신학이 팽배해져 있고, 또한 이와는 달리 신자의 영적 삶이란 인간의 수련적(修練的) 요소와는 아

1) Stott, John. R. W.,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현대 기독교 선교, 김명혁 역, 서울: 성광 문화사, 1981), p. 189. Stott 박사는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요 목회자로서, 현대교회가 현대신학 사상에 영향을 받아 복음의 의미마저 변질되어가는 것에 대한 많은 경고를 한 바 있으며, 상기의 책에서도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다.

2) ‘영성’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이르러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현장에서, 그리고 신학도들이 신학교에서 흥미를 갖고 다루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영성신학’이나 ‘영성목회’, 또는 ‘영성신앙’ 등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성’(또는 ‘영적’)이라는 말에 대한 성경중심의 개혁주의 사상 안에서의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주장되어 신앙의 세계와 현실이 이원화되어 가는 비성경적 가르침 역시 팽배되어 있는 듯한 오늘의 기독교적 현실에서 볼 때, '영성'의 바른 이해는 시급한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의 기독교 신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그 이유는 '영성'이라는 주제가 교리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에 관한 삼위일체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 신학적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신자들의 삶에 직접적이며 긴박한 주제로 등장해왔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영성'에 대한 이해는 신자들의 성화와 관련하여 성령의 내적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하여 삼위일체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신자들의 삶이나 신앙상태와 관련하여 '영성'(靈性)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루어 왔다. '영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영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음은 사실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그 신학적 입장에 따라 '영성'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모습에서 이다. 어떤 견해에 따르면, '영성'이란 "거룩한 것, 무엇인가 신성한 본질을 질문하고, 초월적 포괄자 또는 존재 자체로부터 인간의 자기 뿌리를 질문 받고 있다는 경건한 마음의 자세"로 이해된다.<sup>3)</sup> 이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은 또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따르면, 영성이란 "초월적인 신의 현존을 탐색하는 내적 감수성이나 또는 궁극적 실재와 접촉하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태도나 신앙, 실천"<sup>4)</sup>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 다른 견해에 따르면,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의 임재 경험"과 관련되어 있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sup>5)</sup>으로 표현되

3) 김경재, 「종교다원시대의 기독교 영성」 1994, p. 11.

4) 이기춘, 「기독교 사상」 1992년 7월, pp. 48ff.

5) Howard L. Rice, *Reformed Spirituality: An Introduction for Believers*, 황성철 역, 개혁주의 영성 CLC, 1995, pp. 12, 34.

며, 또는 “(인간의 내면세계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심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sup>6)</sup>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견해로서 어떤 이는 주장하기를, ‘영성’이란 인간의 종교적 본능을 드러내는 어떤 것이긴 하나, 그것은 다만 인간중심의 논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적인 삶의 모습”<sup>7)</sup>에서 더 나아가 성령께서 다스려 나가는 내면의 세계임을 강조한다.

위의 진술들을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눈다고 한다면, 한 분류는 영성에 대한 보편적 의미로서의 종교적 의미를 충족시키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 한 분류는 그리스도 중심의 내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한 내적 욕구가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겠다. 한 쪽이 인간 스스로의 본질적 영성을 인간의 의지적 외향 내지 자기변화(自己變化)라는 측면에 강조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한 쪽은 하나님과의 수직적(또는 직접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내적(內的)인 은사(선물)요, 성령의 사역으로 인한 성화(聖化)라는 측면으로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영성’을 논함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이 ‘영성’의 문제를 단순한 삶의 윤리적 차원의 문제만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친 영지주의방식을 취한 나머지 주지주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성경중심의 개혁신앙에서는 ‘영성’의 이해를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의미 있는 논의가 된다고 하겠다. 우리가 ‘영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오늘날 논의되는 ‘영성’의 문제를 계시된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논의되는 영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는 어떠한가? 먼저, 다음 란에서 이에

6) Gordon Macdonald,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홍화옥 역, IVP, 서울, 1990, pp. 13ff.

7) Francis A. Schaffer, 「기독교 영성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II권 1장, pp. 232-37.

대한 서술을 행하고, 계속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로서 진정한 개혁주의적 사고 안에서 이해되어야 할 진정한 성경중시의 ‘영성 이해’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I. 기독교적 “영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 1. 인본주의적 영성 이해와 종교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적 접근의 오류:

‘영성’을 다만 ‘원래의 인간성 회복’(또는 정체성 회복)으로 여기는 경우: 여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범죄가 실제로 인간성을 파괴한 것이 아니요, 다만 상징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탈인고로, 인간의 ‘자기정체성 회복’이 곧 ‘바른 영성의 회복’으로 여기는 경우(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경우나 인본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의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입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개신교가 종교개혁의 이름아래 로마 카톨릭의 교회권위와 그 제도들을 멀리하고 인간 속에 깃든 바 성령 안에서의 자유정신을 부르짖었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을 전제로 한 인간성을 부르짖었다. 동시에 당시의 인본주의적 합리주의가 판을 치고 있던 르네상스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신앙 안에서의 합리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이 합리성은 결국 후에는 인간에게 있는 종교성의 문제를 초월(超越)이 아닌 내재(內在)의 문제로, 내세(來世)가 아닌 현실세계(現實世界)의 문제로 귀착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믿음이란 이성적 파악의 문제로 돌려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향한 ‘인간성 회복’이라는 문제로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본다.

이러한 신학적 분위기 속에서 ‘영성’은 다만 전통적 교리들이란 인간성을 회복하는 예증(例證)들로 재해석되면서 이에 지적(知的)으

로 동의하는 수준으로 전락하는 자유주의 신학적 흐름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 영성은 다만 삶에 필요한 수단들로서 인간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도구들로 이해되는 모습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간 중심의 인간이성의 영역과는 전혀 다르게 '영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영성을 '지성'과 상반된 것으로 파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sup>8)</sup> '영성'에 대한 이해가 극단의 신비주의적 경향으로 가게되면, 거기에는 '영성'(靈性)을 '지성'(知性)과 대립되는 경향으로 이해하는 모습이 발생한다. 영성에 대한 인간학적 이해가 지나친 극단의 경향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영성에 대한 초이성(超理性)을 강조한 나머지 합리성을 상실한 신비주의적인 경향으로 이해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영성을 초이성(超理性)의 경우로 이해하는 대개의 경우, 그 근본은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고린도 전서 1-2장에 근거하고 있음을 본다. 실제로 고전 1-2장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일 뿐, 사람의 이해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요,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임을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에 속한 비밀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2:5-7)에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정"(thoughts of God)은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외에는 알 길이 없다는 것이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2:13)만 분별이 가능하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고전 1-2장의 교훈이 바울 스스로가 아레오바고의 언덕에서 기독교적 지성(知性)을 사용하여 복음을 설명하고 전도한 내용(행전 17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종교다원적 상황 하에서의 영성: 종교 다원주의적 사고에 있어서

8) Francis Schaffer, 「기독교 영성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년 422ff.

의 기독교적 영성은 김경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인간의 영성은 지성, 덕성, 감성과 같은 사람 생명현상의 하나이면서도 더 근원적인 깊은 인간의 자기초월 능력과 관계된 생명현상이다... 인간은 자기초월적 정신적 존재요, 유기체적 우주 속에서 초월의 지평을 향해 끊임없이 생명의 질을 상승시키려는 순례자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다”.<sup>9)</sup> 그는 인간이해에 대한 현대적 관념론적 이해나 유물론적 인간이해를 거부하면서, 삶의 무의식적 심층구조에서 느끼는 마음과 연결시켜 기독교적 영성과 이해하여 보고자 한다. 그는 기독교의 영성에 대하여 말하기를, “예수의 생애,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적 요소가 구원의 진리와 함께 “조상들의 풍성한 종교 체험과 성숙한 영성의 보화들이... 지평 융합” 되어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기독교는 전통문화나 전통종교와의 대화와 교류 속에서 그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한다.<sup>10)</sup>

물론 김 경재 역시 영성을 단순한 인간존재의 일부분으로 보려는 입장을 지양하고, “하나님의 현실 또는 성령의 활동과 관련된 인간 생명의 신비한 현상”이라고 보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 본다. 그러면서도, 김 경재는 인간생명의 특징으로서 “자기 초월적 존재”임을 주장하면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를 통합하려는 일원론적 차원의 통일성과 더불어 개인과 사회 전체를 통괄하는 체계로서의 영성을 주장한다. 그는 성령에 대한 “해방의 영”으로서의 이해는 진리개념에 대한 절대성이라든지 대립적 요소, 또는 독선적 자세를 버리고 모든 이념들을 포괄하는 공존과 화해, 그리고 종합으로 드러나는 영성을 강조한다.<sup>11)</sup> 따라서 그는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영성을 언급하면서<sup>12)</sup> 더 이상 종교간의 차별화를 통하

9) 김 경재, 「종교다원시대의 기독교 영성」, 다산 글방, 1992, p. 5-6.

10) *Ibid.*, P. 6.

11) *Ibid.*, pp. 12-17.

12) 김경재가 말하는 새시대의 영성의 다섯가지 특징으로는 첫째, 몸의 감수성, 둘째, 생명의 연대성, 셋째, 삶의 단순성, 넷째, 우주질서의 동시성, 다섯째, 평화의 훈련 등을 들고 있다.

여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특수계시론과 자연계시론, 또는 특수계시론과 일반 계시론이라는 이중 계시론을 만들어 냈다. 계시 경험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전달하는 패러다임이 불교는 계시 경험이 전혀 없는 인본주의적인 자력구원 종교요, 기독교는 특수계시에 입각한 은총의 타력구원 종교라는 식의 도식적 구별은 이해부족의 소치요, 솔직히 말하면 타종교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거나 피상적인 이해의 결과다.<sup>13)</sup>

김 경재의 포스트모던 시대 안에서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이나 계시적 절대성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그는 말하기를,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이 종교간의 성숙한 대화와 협동을 저해하고, 인류 미래의 영적 성숙과 미래 지향적, 상호 창조적 변화를 방해한다”는 것으로서 “(모든) 종교들의 상대성”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틸리히(Tillich)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특수한 종교나 구체적인 진리들은 일반적 종교나 보편적 현상들을 통해 나타나게 됨으로 모든 종교적 진리들은 우주적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sup>14)</sup>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원리는 상징들(symbols)이요, 이러한 상징들은 문화나 역사, 자연을 통하여 나타나되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초극하여 있다는 것이다.

김 경재의 다원종교 현상 속에서 이해되는 기독교 영성은 우선 성경적 근거를 상실한다. 우선 인간을 둘러싼 삼라만상의 정신성을 영성으로 이해하면서, 생명의 하나됨(一致)을 주장하는 것은 언뜻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겠으나, 그가 주장하는 성령이해는 틸리히(Tillich) 신학에서 말하는 범신론적 입장에서의 존재의 근거로서의 신성(神性)을 의도할 뿐, 창조와 타

13) *Ibid.* pp. 166-167.

14) *Ibid.*, pp. 181-186.

락, 구원과 심판 등을 말하는 성경적 체계를 거절할 뿐이다.

그에게 있어서의 인간의 영성은 비록 그가 “하나님의 영광 함께 할 때의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성, 곧 역사성의 한계도 초월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하지만,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영성은 단지 “율법주의적 강박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와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을 문자의 의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성경적 사고로서 이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sup>15)</sup>

그것은 무엇보다도, 김 경재의 기독교 영성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인 이해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경에 나타난 인식론적인 측면의 신이해를 부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거로 한 기독교 영성은 ‘대화와 협동, 그리고 친교’라는 이름아래 성경적 근거를 상실한 보편성으로서의 영성만을 주장하게 될 뿐이다.

## 2. 영성과 성화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오류:

‘영성’을 가건적 표징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 최근에 들어서 현대인들에게는 ‘영성’에 대한 ‘경험론적’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있다. 이것은 ‘영성’에 대한 가건적 표식을 추구하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경향들로 나타나는데,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영성’에 대한 외형적 표징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 극단적으로는 ‘비기독교인’ 이라고 하거나 ‘이류(二流)의 그리스도인들’ 이라고 ‘판단’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비록 이들 가운데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부르짖는 복음주의 운동이 있기는 해도, 그들 속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여 말하는 오류가 있는고로 이러한 극단적 사고는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순절 운동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유일한 증거로 ‘방언’ 과 치유를 증거로 하

15) *Ibid.*, pp. 13-15.

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성경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하기도 하며, 또한 성령의 사역에 매우 강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주로 남미의 복음주의 계열에서 보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성화의 과정을 곧 칭의로 보려는 바,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하여 정통주의와는 차이가 있음을 보게된다.

영성과 성화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성을 일부 수도원적인 사상가들의 경우에서처럼, 다만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비록 하나님의 영을 기초로 한 영성을 추구하는 신자들로 하여금 많은 영적 실천들을 요구하며 다양한 훈련의 과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헌신적인 생활을 통한 실천적인 사항들이 요구됨에 따라 금식, 절제, 묵상, 기도 등이 영성 수련의 모습으로 권장된 사항들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도록 한 것은 사실이다. 말만의 거룩함이 아니요, 도피적인 영성을 추구함이 아닌 열심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 노력을 추구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때로 빛나간 영성은 그 속에서 영성의 추구를 '구원을 향한 대가'로서, 또는 '공로'로서 이해될 때, 그것은 잘못된 영성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신자들이 추구하는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수여받은 구원의 자녀로서의 삶의 표현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감사하는 삶이요, 자녀로서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을 지칭함에 있어서의 '거룩함'의 의미는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 사역과 이에대한 성령의 내적 임재를 표현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거룩'(聖)이 비기독교적인 바탕 위에서 다만 인간의 내면 세계를 절대화 하고자 이해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룩'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증생된 사람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해되어야 하는 성경적 교훈을 드러내고자 함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의도는 하나의 주장에서 동시에 의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거룩'의 개념이란 타락(墮落)한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重生)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파악될 수 없음을 보여주지 위함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가 소유해야 할 '거룩'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칭의(稱義)의 열매요, 또한 성령의 감화를 따라 살아가는 성화(聖化)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거룩'(함)이 칭의의 열매인 이유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요, '거룩'이 또한 성화의 과정인 이유는 이것이 오직 성령께서 내주(來住)하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요 15:5)라는 말씀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총을 통한 그리스도의 내주 하심에 의해서 -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는 바울 사도의 교훈으로 이해되는 - 가능한 것이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란 '성화'의 과정(過程)으로 이해된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칭의가 주어졌다면, 성화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은 성화의 진정한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성화의 가능성은 인간의 양심의 힘에 의해서나 도덕적 동기들에 의해서, 또는 훈련의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의 화해에 의하여,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sup>16)</sup>

신자가 추구하는 '영성'(spirituality)의 의미가 '하나님의 성령'(the Spirit of God)이라는 근원에서 출발한 것이요, 그 근원을 가지고 있다면, 영성이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을 논함에 있어서, 그리고 신자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 삶을 언급함에 있어서 '거룩(함)'을 말한다. 하나님은 그 본성상 '거

16) Charles Hodge, *The Way of Life and Selected Writings*, ed. Mark A. Noll(Mahwah, N.J.: Paulist Press, 1987), p. 223. 또한 고후 5:18을 보라.

룩' 하신 분이요(출 15:11; 19:6; 민 6:8; 20:12; 수 24:19; 대상 29:16; 시 22:3; 77:13; 사 41:14; 41:20 등등),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거룩(함)' 을 요구하신다(레 20:7; 21:6; 21:8 등).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심은 신자의 거룩한 삶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본다(벧전 2:9; 벧후 3:11).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의미와 관련된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거룩(하심)' 과 관련이 된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holy)이라는 개념, 즉 "구별된 것"(parash)과 관련을 맺는다. 즉, 신자의 '영성' 은 신자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거룩(함)' 을 맺는다는 말이지, 곧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을 뜻한다. 여기에서의 '구별된 삶' 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기 쉬운데, 따라서 신자의 '영성' 은 신자의 '구별된 삶' 을 명확히 하기 위해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 3. 민중신학의 영성이해에 대한 오류 및 범신론적인 사고의 오류

(민중신학의 영성이해에 대한 오류와 '영성' 을 '우주 안에 깃든 정신' 으로 보거나 '범세계 정신' 으로 보는 범신론적인 사고의 오류에 대하여)

'영성' 을 그리스도의 속죄적 가르침에서 벗어나 말함: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더 심각한 극단의 경향은 기독교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독교의 교리를 근본적으로 재해석하는 일단의 자유주의적 사고의 경향이다. 이들은 비록 성경과 성경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리고 성령의 활동과 사역을 거론하고 있기는 하나, 그 근본에 있어서 정통기독교를 떠난 채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일단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 은 '공동체의 (역동적인) 힘' 으로 이해되고, '구원' 은 공동체에서 이탈된 '소외된' 존재로서의 인간을 공동체에도 받아들이는 요소로 이해된

다. 그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적 모순에 의해 살해된” 분으로 묘사되며,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이해하는 길은 ‘오늘 이 땅위에서 고난받고 죽임 당하는 민중과 연대하고 자기동일화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능해 진다’고 주장된다.<sup>17)</sup>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독교의 자기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땅히 이해되어야 하는 ‘성령 공동체’가 기독교 역사 안에서 “개인주의적 피안적 기독교”로 변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는 서구의 그러한 입장의 기독교론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임마누엘)의 의미를 민중해방운동으로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신성)의 개념은 ‘민중과 함께 일으키는’ “민중성의 개념”으로 재해석된 공동체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중신학의 일반적 사고를 참고할 것)

민중신학이 스스로 ‘성령의 신학’임을 강조한 것은 무엇보다도 민중신학자들이 스스로 말하는대로, 성경해석의 원리가 ‘성령론적 방법’에 근거했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아본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어떤 (성경에 기록된) 문자나 (교회라는) 제도에 갇힌 채 이해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나온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성경이나 신학에 묶여있는 그 어떤 영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존재 양식’이며, ‘세계의 갱신’으로서의 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해석에 따르면, ‘성령의 사역’은 ‘해방의 사역’이며, ‘변혁적 사고’의 영이다. 따라서 성령은 역사 안에서 일어나야 할 ‘변혁적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힘으로 이해된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救贖史)는 정치적 해방을 목표로 하는 세속사(世俗史)와 구별이 없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개인 중심의 영적 구속사역은 사회구조(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의 변혁과 아무런 차이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다.

17) 서남동, 「전환기의 민중신학: 죽재 서남동의 신학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신학연구소, 1992) pp. 182ff).

이러한 민중(해방)신학에서는(특히 서남동의 사상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이란 민중체험의 영성(정신성)으로 대체되며, 그 민중의 영성(정신성)은 민중이 처한 한(恨)의 고통을 풀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김 경재교수에 의하면, 이러한 서남동 사상 중심의 민중의 영성은 동학의 시천주(侍天主) 사상이나 불교의 미륵신앙과 흡사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sup>18)</sup>

민중신학의 이러한 영성이해는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적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관을 이탈한 것으로 상당한 문젯점이 있다. 물론 그것이 복음의 사회적 차원의 사회적 구원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를 들수는 있으나, 거기에는 복음 자체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이미 이탈해 있다는 데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중신학에서 주장하는 영성에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을 기초로 하며,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을 이루신 영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면을 부정하거나 간과(축소)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영성이 처음부터 성경의 구속론적인 가르침에서 이탈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sup>19)</sup>

#### 4. 혼합주의(syncreticism)적 영성의 현실과 그 오류:

현대에 와서 기독교의 영성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종래의 신비(주의)적 경향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임을 주장하면

- 
- 18) 김경재는 서남동의 민중신학을 '성령론적 신학'이라고 규정한다: 김경재, 「종교 다원주의 시대의 기독교 영성」, 서울: 다산 글방, 1992, pp. 326-334.
- 19) 민중신학의 성령이해와 영성이해는 비록 그것이 '현장'과 '삶'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있어서는 어떤 실제적 역할을 강조함으로 의미가 있다해도, 민중신학에서 '성경의 그리스도'가 '우주적 그리스도'로 이해되며, '삼위일체로서의 성령'이 '만물 속에 깃든 범신론적 성향'을 내세우는 한 그것은 기독교적 가르침에서 이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Cf. 채 희동, 「민중, 성령, 생명: 죽제 서남동의 생애와 사상」(서울: 도서출판 한들, 1996), pp. 138ff, 166ff.

서 영지주의(Gnosticism)적인 의미를 따라서 전개한 것이라고 할 때, 최근에 들어와서의 신비주의적 경향은 세속적이며 탈기독교적 문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그 경향에 있어서는 비록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하기는 하나 더 이상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 속에는 저 너머의 세계를 동경한다고 말은 하나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의 천국은 아니요, 신비주의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말하나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아니다. 그것은 저너머의 이상과 꿈,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가능성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세속성을 보게된다.

이 혼합주의적인 영성 속에서의 인간은 '신의 한 부분으로서' 또는 '신 그 자체로서'의 인간을 이해하고자 한다. '신'은 더 이상 '타자' (他者)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 속에서' 이해되며, 인간은 자신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영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신과의 합일' 되는 존재로서 파악되는 것이다. 바로 동양의 (힌두교의 경우와 같은) 범신론적인 종교 속에서 인간은 바로 그러한 신적인 존재로 이해되며, 이러한 것은 인간 속에 내재된 힘을 통하여 무지와 환상의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수도적 방법과 명상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sup>20)</sup>

### III. 영성에 대한 성경중심의 이해

영성에 대한 이해는 다음의 몇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20) J. M. 기타가와, 「동양종교 - 근대화의 고문」, 서울: 유림사, 1995, p. 134. 그리고 최근 20세기에 기독교의 이름을 빌어 나타난 신비주의적 흐름과 그 배경으로의 세속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쉐퍼 박사의 글이 매우 유의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Francis A. Schaffer의 글, "새로운 초영성"을 보라. 「기독교 영성판」, 크리스찬 다이제스트(1995), pp. 411-430.

## 1. '삼위일체적 관점'의 중요성

오늘날 기독교 신앙 안에서 논의되는 영성의 실체는 참으로 다양하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령과 그 성령의 사역에 관한 가르침에서 성경은 이렇게 교훈한다: “영(靈)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요일 4:1). 또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안에서의 일체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3; 엡 2:18 등).

따라서, ‘영성’(靈性)이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의 형상(Image)을 닮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 되신 ‘성령’(聖靈)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삶”임을 드러내는데 있다는 말이다.<sup>21)</sup> 따라서, 개혁주의 성령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인격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감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지향(志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는 영성(靈性)의 근거로서의 신자의 영성은 곧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가 소망하고 받아들이는 성령의 사역이란 단순히 인간의 주관적 체험주의를 우선적으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궁극적으로 회복하는 일이요, 또한 신자들이 추구하며 이해하고자 하는 ‘영성’이란 ‘성령’ 안

21) Cf. Barton, Stephen C., *The Spirituality of the Gospels* (『사복음서의 기독교 영성』, 김재현 역, CLC, 1997), pp. 24-25.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며 자비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은 틀림없으나, 이는 동시에 신적 권위에 대한 인간의 ‘복종과 선한 행위들’을 내포한다.

에 속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성경중심의 참된 '영성'이란 창조 시에 수여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골 3:1-4, 10)이요, 이는 곧 복음서에서 강조하는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 아래서 사는 삶"이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2)</sup>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적 자비"를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응답하는 삶으로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복종과 선한 행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sup>23)</sup>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요, 그의 계명들을 듣고 순종하는 헌신에 의하여 밝혀지는 것임을 뜻한다. 신자의 영성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수여 받음을 통하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sup>24)</sup>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전형으로서의 '영적 모습'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자들이 깨닫게 되는 진정한 영성은 성자 예수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관계이다. 이것은 단순히 하늘의 아버지를 향한 의지적 복종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내면(관계)에 있어서 친밀성(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요일 1:2-3).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함을 보여주기 위해 영성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sup>25)</sup>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22) Barton, Stephen C., *The Spirituality of the Gospels* (김재현 역, 「사복음서의 영성」, 서울:CLC, 1997), 25.

23) *Ibid.*

24) Jordan Aumann, *Spiritual Theology* (London: Sheed and Ward, 1993), p. 17.

25) Barton, Stephen C., 사복음서의 영성, p. 127. 저자는 특히 누가-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성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저자는 그 책에서(예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서, 이는 동시에 신자가 지녀야 할 제자도(弟子道)로서의 영성을 특징지우는 것으로 본다.

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 그 자체라기 보다는, 이러한 기도생활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 관계성은 그 어떤 다른 행위(심지어 기도하는 ‘행위’)보다도 앞서는 것이요, 우선적이라는 점이다. 단지 기도는 그 ‘관계’를 보여주는 실례일 뿐이라고 하겠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예수의 선언, 그리고 신자들간의 사귀음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요일 1:3)이라는 말 씀이야말로 그 모든 영성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된다. 그것은 신자의 영성이 오직 어떤 수양이나 도덕적 행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적 관계성(삼위일체적 관련성)이 삶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하신 그 친밀성과 관계성은 신자들의 영성의 근본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신자들에게 임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성령과 그 사역은 다름 아닌 ‘신자들 속에 거하시는 영’(靈)으로서, 신자들은 바로 이러한 ‘영’(聖靈)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한 영적 존재인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신앙세계를 바라볼 때, 현대사상에서 이해되는 ‘영성’(Spirituality)에 대한 다양한 이해는 오늘날 성경에 바탕을 둔 개혁주의 사상이 가르치는 ‘영’(또는 ‘영성’)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한 성경적 이해를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다.

## 2.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重生)의 의미’와의 관련성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또는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관련되어 이해되는 ‘영’(즉,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칭(칭)을 말한다. 즉, 창조와 구속으로 이어지는 삼위일체로서 이해되는 하나님의 영을 일컫는다. 따라서, 삼위일체적 개념으로부터 이해하되, 그 영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속죄 사역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성령의 사

역(요한 14장, 17장을 참고할 것)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마치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 즉 성육신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에 관한 것임을 말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이름을 내세운 ‘영성’을 논함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부정하는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바,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영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회복된) 모습가운데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구원을 전제로 하지 않음은, 인간성의 개발(회복)이라는 명목으로 이해되는 영성이란, 마치 스토티(John Stott)가 말한 대로, 기독교의 구원을 다만 “심리학적 통합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또한 “균형 잡힌 개성의 완전성”으로 보려는 것과 같을 뿐이다.<sup>26)</sup> 스토티에 따르면, 비록 신앙의 온전함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한 새로운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과의 ‘화해’(reconciliation)를 (인간성의) ‘통합’(integration)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ms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이는 마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하신 분에서 고난받는 민중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오류와 같으며, 또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으로 보는 오류와 같은 것이다.<sup>27)</sup>

그런고로, 영성의 근원(根源)으로서의 성령을 논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전제로 하지 않거나, 성육신(成育身)하셔서 이 땅에서 속죄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 또는 오늘날 신자의 생명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저버리는 ‘영’(또는 ‘영성’)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성이 아니요,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하나님께 속한 영(성령)이 아닐 뿐이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신앙과 이를 둘러싼 종교영역의 ‘영’(靈)에 대한 실상은 어떠한가?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사상과 종교들을

26) Stott, John R.W., 「현대기독교 선교」, p. 115.

27) *Ibid.*, 75. 121.

볼 때, 그들 역시 ‘영적’ 존재로서의 그 어떤 ‘신성’(神性: ‘divine’)과 그 신성을 바탕으로 하는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종교적 주관주의라는 신비주의적 사고를 가져옴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가능케 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집중하지 않는다. 인간중심의 신학적 사고나 개별적 체험위주의 영성이 십자가에 달리신 중생의 의미를 떠나 다만 인간의 내면적 자아 정체성(自我 正體性)을 되찾거나 이를 추구하는 것으로 강조한다면, 이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관계없이 말하는 ‘영성’의 의미와 중생케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안에서의 ‘영성’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의 영성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진정한 경건(敬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칼빈(Calvin)의 사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28)</sup> 진정한 영성의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죄(罪)로부터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만 가능함을 성경은 증거한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이란 그리스도의 은혜아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연합하는’ 원리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생명력있는 삶을 의미한다.<sup>29)</sup>

이러한 입장은 진정한 영성이란 성경에 나타난대로, 인간의 죄의 비참한 상태를 인식하여 그 더러운 상태를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지향해 나가는 것으로서, 바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

28) Calvin, John. *Institutes*, 1. 2. 1. 칼빈은 ‘진정한 경건’에 대한 이해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시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love)과 결합된 경외심(fear)을 경건(piety)이라고 부른다.”

29) 특히, 로마서 6:5-11을 참고하라.

는 말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중생(重生)의 의미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종래의 영성운동이 다만 개인의 주관적이며 신비적(神秘的)인 체험위주로 이해되는 것이나 또는 다만 수덕적(修德的)인 차원으로 이해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영성'은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받은 구원론적 기초아래에서 이해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참된 기독교적 영성은 중생과 칭의에 기초하여 상화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고로, 영성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 성화없는 칭의나 칭의없는 성화란 진정한 의미에서 불가능함을 이해할 때, 그 바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영성의 추구는 곧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상화의 과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자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론적인 의미를 기초로 한 칭의와 하나님의 자녀(양자)로서의 마땅한 성화로서의 삶의 과정을 무시한 채, 영성을 다만 인간의 보편적 정신성의 문제나 심지어 종교학적 개념으로서 기독교의 영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영성의 이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신자의 참된 '영성'(spirituality)은 곧 성경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나타난 성령(聖靈) 안에서의 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속(사역), 그리고 이를 성취하시는 성령과의 관계에서 이해되는 바, 그리스도와와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영'(성령, 또는 영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하나님에게 속한) 영'이요, 그 '하나님의(하나님에게 속한) 영'은 범죄하여 '죽은' 인간들(엡 6장)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바로 그 '구원의 영'(the Spirit of salvation)이시요, 신자들을 또한 새롭게 하는 '회복의 영'(the Spirit of restoration)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출발하는 바, 기독교 신

앙이 추구하는 '영'(영성)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저 너머의 초월적(超越的) 존재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즉,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을 이해하되, 먼 신비적 존재로서의 초월자만을 의미하거나 우주만물 속에 깃든 그 알 수 없는 어떤 신비감(神秘感: 또는 '어떤 근원을 향한 경외심')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 그 존재자체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승화시키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 속에 내재된 종교성 내지 정신성을 절대화하는 사고방식이 되어서도 안된다는 말이다. 성경 중심의 영성 이해는 오직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創造)받은 피조물임을 받아들이고, 인간 속에 들어있는 범죄한 죄(罪)의 성향을 고백(告白)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구속(救贖)을 따라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New Creation; 엡 5:17)로서의 새로운 인간상(人間像)을 회복할 때 나오는 진정한 '영적' 상태에서 이해하는 것에서 기독교의 영성은 이해되어야 한다.

### 3. 영성과 공동체성: 진정한 영성은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성 회복'을 지향함.

신자의 '영성' 회복은 삶의 경건을 이루게 되고, 그 열매는 공동체 안의 인생들에 대한 축복의 수단이 된다. '영성'의 의미는 신자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세와 관련이 되므로, 이는 신자의 경건(생활)과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경건의 의미가 다양한 수준(단계)을 띤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신자의 경건은 한 사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신자의 경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유(율법의 규례라는 의미가 아닌)를 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共同體)를 형성해 나가는데 까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영성의 목표가 단지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

드는 데만 있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있는 것과 관련이 된다.

때때로 개신교적 영성은 개인화된 형태의 경건(개인 체험위주의 신비주의적 모습)을 내세우기도 한다. 물론 개인화된 경건의 형태는 신앙 그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관계(personal relationship)로 나타는 것이요, 또한 개인화된 경건이란 역사상으로 나타났던 로마 캐톨릭이라는 '집단적'이며 '제도화된' 규제에 대응하는 개신교적 특징을 띤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신자들이 추구하는 영성이란 개인을 향한 명령이나 권면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음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지녀야 할 영성은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마치 구약시대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百姓)을 의미했고, 또한 신약시대에 이르러 '교회'를 통하여 언약백성(言約百姓)들이 성령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듯이,<sup>30)</sup> 성경에서 언급하는 '영성'은 집단적 가치관 안에서 더 깊고 더 고상하게 이해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의미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31)</sup>

신자가 일단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신자는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성도'(거룩한 무리)라는 공동체성을 수여받는다. 따라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믿음을 생활화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지체들'로서의 의식을 갖게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해는 성도간의 친밀성과 유기적 연합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교훈이 된다.

30) 문석호, 「21세기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줄과 추, 1998, p. 62. 특히 본서 pp. 59-91을 보라.

31) *Ibid.* 복음의 고백적 일치성과 공동체적 사랑간의 모습에 대해서는 상계서 pp. 210-223을 보라.

그것은 또한 성만찬의 의미에서와 같이 신자들이 ‘한 상(床)’에서와 ‘한 잔(盆)’에서의 사랑의 나눔을 교훈하는 것과 같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속받은 자녀들임을 보여줌으로서, 진정한 영성의 의미와 그 실천은 ‘공동체’적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성의 진정한 의미란 개인의 이익이나 관심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위로를 나누어주는 공동체적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교훈을 하는 고전 12장은 각종 은사(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중, 12:7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common good’:NIV.) 하려하심이라” (원문의 의미: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공공의 유익(공동이익: ‘common good’)을 위한 것입니다; ‘함께 일으키다’, ‘가져오다’, ‘발전시키다’, ‘앞을 향해 나가다’). 즉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말씀한다. 그런데 이 은사의 ‘유익성’을 논하는 고전 12장 이전인 10장-11장을 살펴볼 때, 특히 10장의 ‘성만찬의 교훈’ 중에서는 속죄의 의미가 공동체의 의미로서 이해될 수 있도록 “참여(함)”(16, 17, 18, 21 절 등), 또는 “한 몸”에 대하여 강조한다. 이것은 때로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10:24)과 “...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라는 교훈과 관련이 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영성은 전능자요,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향한 구속과 관련된 영적 활동으로서의 모습이다. 이것은 동시에 인간과 교통(交通)하시면서 위로자요 권위자로서 인간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본성이 신자들 간의 공동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유일한 규범으로서의 영성(공동체적 영성)을 또한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체성’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그의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셨던 친밀한 관계성(關係性:

Cf. 요일 1장 참고)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한 이것에 근거한 신자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이다.<sup>32)</sup>

이러한 상호 관련성 내지 연합은 머리와 각 지체들 간의 연합을 이루는 핵심이 된다. 이것은 칼빈이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함께 가지셨던 연합의 관계를 바로 신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3)</sup> 이러한 신비적 연합은 단순히 주관적 체험위주의 신비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칭의(稱義)를 통한 개인적이며 공동체적 성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는 성경중심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Body of Christ')의 지체들(members)로서의 공동체적 모습과 관련이 되는 것이요, 또한 성령 안에 있는 신자의 삶으로서의 '성화' (聖化)라는 측면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34)</sup>

이것은 오늘날 절대자이시기는 하나 인간이해의 한계를 벗어나 신비적 관계로서의 신중심(God-centered)을 말하는 신학적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구속적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적 체계를 강조하는 개혁신학의 전통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개혁신학의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중심의 체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들의 연합을 말하되, 그리스도 공동체로서의 교회(教會)에 대한 이해와 관련을 맺는다. 여기에서 나오는 참된 영성은 이웃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관련을 맺게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성은 단순히

32) Cf. 요일 1:3.

33) Calvin, *Institutes*, III, XI, 10, p. 737.

34) 이는 마치 다음과 같은 말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양심에 의해서도 아니며, 도덕적인 동기들에 의해서도 아니며, 훈련의 행동에 의해도 아니며, 하나님과 화해하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기 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서이다.” Charles Hodge, *The Way of Life and Selected Writings*, ed. Mark A. Noll(Mahwah, N.J.: Paulist Press, 1987), p. 223.

주관적이며 개별적인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참여를 통한 사랑과 봉사라는 측면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위일체적 관련성 안에서 이해되는 신자의 영성 이해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통하여 신자들 간에 나타나야 하는 상호관련성 안에서 그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칼빈(Calvin)이 말한 바와 같이, “약점들을 서로 내려놓고, 서로를 충고하며, 서로를 동정하며, 서로를 위로해야 한다”는 공동체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다.<sup>35)</sup>

#### 4. 참된 영성: 오늘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추구함.

진정한 ‘영성’을 추구한다는 신자의 삶은 극단을 피하고 신앙적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진정한 영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에 현실과 내세간에 필요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다. 그것은 현실과 내세에 대한 성경적 이해, 성경중심의 계시이해와 체험적 신앙세계의 구현, 그리고 영(靈)과 육(肉)에 대한 적절한 화합, 사고(思考)와 실제행위(實際行爲)간의 관계 등의 바른 관계정립 등을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신자의 영성은 ‘빛’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라는 배경을 전제로 한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배경이 ‘세상’이었던 것과 같이, 신자의 영성 역시 신자들이 살아가는 역사적 상황과 삶의 정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영성’은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를 향한 복음의 사명을 전달해 내는데 있다. 이것은 진정한 영성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되, 세상에서 데려감을 원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고 오직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35) Calvin, *Institutes*, III, IV, 6, p. 630.

이다.<sup>36)</sup> 이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성이 미래적이거나 저 세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요, 또한 자신만의 이기적인 것으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행복을 위한 영, 육의 문제에도 관여되는 것이요, 더 나아가 타인과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행하는 기독교적 영성은 개인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악조건들에 까지 깊은 관심을 가짐으로서 '저 위' (above)의 세계(또는 내세)만을 추구하는 현실도피적인 삶이 아니요, 또한 영(靈)과 육(肉)의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무시하는 '사이비 신앙'의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sup>37)</sup>

성경중심의 진정한 영성은 현실의 삶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삶의 자세 속에서 바른 이해를 갖는다. 내세만을 지향하면서 이것을 '영성'의 이름으로 미화하게 되면 현실세계를 부정함으로 정치나 경제 등에 관한 성경적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 이것은 영과 육을 구별하는 이원론적인 태도일 뿐이다. 영과 육의 이분법적인 이해 속에서 신앙은 오직 영적인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육체를 부정하고, 또한 세상을 거부하는 자세를 갖게된다.

이러한 자세는 인간을 흠으로, 자연을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세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과 육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자연을 통하여 감각적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신 저자이시다.<sup>38)</sup>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현실에서 얻어야 하는 삶의 축복을 거부하거나 맛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연(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이기도하다.

36) 요한 17:15. 또한 요한 1:9; 3:17, 19; 17:13 등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라.

37) Cf. Stott, John R. W., *Ibid.*, 207.

38) Calvin, *Commentaries: Psalms*, 104:31, Vol.4, p. 169. 또한 Institutes, 3. 10. 2., p. 720

따라서 참된 영성은 신자들을 이 세상에서 분리해 놓고자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데 있다. 따라서 기독교 영성은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복음(福音)의 의미를 드러내는데 있다. 오늘날 불변하는 성경적 진리와 변화하는 문화적 상황성이 서로 대립되어 기독교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영성의 이름아래 문화적 변화를 무시한 채 진리의 명제성만을 되뇌일 수 만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영성의 이름아래 기독교적 진리가 지닌 힘(power)을 무시한채 문화적 변혁을 영성으로 이해하는 문화지상주의 역시 배격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기독교적 영성은 오직 성경적 진리 안에서만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변화하는 문화를 통해 복음이 의미를 드러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아래 살아가기는 하나, 문화적 흐름 속에 나타나는 삶의 구체성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기독교적 영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문화적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영성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복음증거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비록 타락한 세상일지라도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에 충실하게 응답(response)하며 살아가는 것으로서 진정한 영성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세상과 분리된 중세적 기도원적 사고는 한편으로는, 세상을 포기했다고 하는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의 기독교가 세상의 문화에 너무나 손쉽게 동화되어간다는 사실 앞에서 일종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신앙이 단순한 지적 동의(知的 同意)에 머물지 않고 움직이며 체험적인 것이 요구되는 것과 같이, 참된 영성은 영\육간의 조

화와 사고\행위간의 조화, 그리고 천상의 세계와 이 땅의 현실간의 조화, 내세\현실간의 바른 조화를 이루어내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 IV. 맺는 말: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

##### 1. 참된 영성: 양자(Sonship)로서의 영을 회복함

인간이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자(養子)의 영’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진정한 신자의 ‘영성’이란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지닌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성경이 증거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영성’을 망각하고 육체적 본성(肉體的 本性)만을 따라 살았던 것을 성경은 증거한다. 인간이 지음 받은 원래의 형상을 좇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자격을 회복케 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함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아들의 영’을 부여받는다.

그런고로 구원받은 신자의 믿음 안에서 이해되는 ‘영성’을 이해함이 없이는 바른 ‘영성’의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다. 더 나아가, 성경적 의미의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 창조자와 피조물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구분하지 않는 일체의 여타의 종교적 가르침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성’을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벗어나 살아가는 불신앙을 떠나서, 원래의 형상(Imago Dei)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신자로서 ‘영성’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이룬다. 이것은 마치 신자들간의 사랑의 ‘친밀감’이 삼위일체 하나님간의 사랑과 친밀감에 근거하여 신자들의 공동체적 영성과 관련

을 갖게 되듯이 말이다.

이러한 이해는 ‘영성’을 다만 인간이 본래적으로 지닌 ‘본성’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비기독교적 차원)와는 구별된 것이요, 또한 영성을 이해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하면서 높은 도덕적 차원의 수양(修養)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려는 시도(자유주의자들의 시도)와도 구별된다고 하겠다.

## 2. 참된 영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보여진 진정한 영성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應答)하여 살아갈 것을 요청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자의 삶이란 예수께서 하늘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듯이, 신자들로 하여금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비록, 영성의 진정한 의미가 신자의 내면성(內面性)에 속한 것이요, 또한 내적인 변화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내적인 변화는 신자로 하여금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천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비록 신자의 영성이 도덕적 수행과 동일한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의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자세를 수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

신자는 바로 이러한 “영성”의 의미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panta eis doxa theo poieite: 고전 10:31)는 말씀을 따라, 그 분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에서 바른 영성을 이해할 수 있다. 신자들이 ‘영성’을 이해하고 추구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냄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러내는데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자의 영성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형상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선택받은 백성들로서의 공동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

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신자들은 영성의 바른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의무와 특권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바른 영성을 추구함의 목적은 인간에게 주신 영성의 의미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오늘날 세속성이 판을 치며 육적 생활의 방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대를 향한 바람직한 교훈을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바른 공동체성을 실현함으로써 신자들의 영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Aumann, Jordan, *Spiritual Theology* (London: Sheed and Ward, 1993).
- Barton, Stephen C., *The Spirituality of the Gospels* (사복음서의 영성, 김재현 역, 서울:CLC, 1997).
- Boice, James Montgomery, *Romans* Vol. I-IV. (로마서, 서울: 도서출판 줄과 추, 1999).
- Calvin, John, *Institutes*,.
- Calvin, John, *Commentaries: Psalms*,
- Gorden Macdonald,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홍화옥 역, (서울: IVP, 1990).
- Hodge, A. A. *The Confession of Faith: A Handbook of Christian Doctrine Expounding the Westminster Confession*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김종흡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 Hodge, Charles, *The Way of Life and Selected Writings*. ed. Mark A. Noll(Mahwah, N.J.: Paulist Press, 1987),
- J. M. 기타가와, 「동양종교 - 근대화의 고문」, (서울: 유럽사, 1995).

- Rice, Howard L. *Reformed Spirituality: An Introduction for Believers*, 황성철 역, 「개혁주의 영성」(서울: CLC, 1995).
- Schaffer, Francis A. 「기독교 영성관」(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박문재 옮김, 1995).
- Stott, John R. W.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김명혁 역, 「현대 기독교 선교」, 서울: 성광문화사, 1988).
- 김 경재, 「종교다원시대의 기독교 영성」, (서울: 다산 글방, 1994).
- 김이곤(외), 「기독교 영성 운동: 21세기를 조명한다」, (서울: 기독교 영성신학 연구소, 1999).
- 문석호, 「21세기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줄과 추, 1998).
- 채희동, 「민중, 성령, 생명: 죽재 서 남동의 생애와 사상」, (서울: 도서출판 한들, 1996).
- (월간) 「영성의 샘」, Monthly magazine: 기독교 영성 운동본부 출판. 1999. 9.